핀다 (Finda)

1. 회사 개요 및 소개

핀다는 2015 년 9월에 설립된 대한민국의 대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개인 맞춤형 대출 비교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동대표로 이혜민 대표와 박홍민 대표가 이끌고 있으며, 금융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비효율적인 금융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온라인 금융상품 정보 포털로 출발하여 2016 년 웹 서비스를 선보였고, 이후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019 년 7월 대출 비교 중개 플랫폼인 핀다 모바일 앱을 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여러 금융기관의 대출 조건을 한 번에 비교하고 최적의 대출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복잡했던 대출 절차를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핀다는 대출 중개 플랫폼으로 성장하면서 개인 신용대출, 전월세자금대출부터 주택담보대출까지 다양한 대출상품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2021 년 1월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본허가를 획득하여 사용자의 흩어진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관리해주는 기능을 강화했습니다. 이로써 고객들은 자신의 대출 현황, 신용정보 등을 앱에서 통합관리하고, 맞춤형 대출 리모델링 제안 등의 부가서비스도 받게 되었습니다. 핀다의 서비스 철학은 "우리가 꿈꾸는 금융"이라는 슬로건 아래 누구나 평등하게 금융 혜택을 누리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핀다는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과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사용자 친화적인 금융 UX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핵심 서비스는 대출 비교 및 대환(갈아타기)입니다. 핀다 앱에서는 시중은행,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60 여 개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어 대출상품 정보를 제공하며, 사용자는 개인정보와 조건을 한 번만 입력하면 다수 기관의 한도와 금리 조건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받은 대출을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는 기능, 여러 건의 대출을 한꺼번에 조회·관리하는 통합 대출관리 기능도 제공합니다. 2023 년 5 월에는 정부의 대출이동체계 인프라를 활용한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출시하여, 고객들이 번거로운 절차 없이 앱 내에서 타기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했습니다. 같은 해 10 월에는

주택담보대출 중개 서비스를 선보이며 담보대출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넓혔고, 2024 년 1월에는 **주담대/전세자금대출 대환 서비스**까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핀다는 혁신 문화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핀테크 업계에서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2021 년 서민금융대상 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하여 금융소비자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업하여 업계 최초로 사내 해커톤(**핀다톤**)을 개최하는 등 사내 혁신 문화도 강조합니다. 2023 년에는 MS Azure OpenAI 기술을 활용한 "**핀다 GPT**"를 개발해 사용자 질의에 AI가 즉각 대출 관련 답변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능을 도입하였고, 2025 년 4 월에는 자체 브랜드 신용카드(**핀다카드**)를 출시하며 카드 추천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현재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약 110 여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핀다는 이제 누적 앱 다운로드 수百万 건,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수십만 명 규모로 성장한 핀테크 기업로서, **토스,** 카카오페이 등과 함께 국내 금융 플랫폼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 중 하나로 꼽힙니다.

요약하면, 핀다는 "대출의 시작부터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정보기술을 통해 개인이 쉽고 빠르게 최적의 금융상품에 접근하도록 돕고, 이후에도 금리 인하나 대환 기회를 찾아주며, 나아가 신용관리와 카드 추천 등 개인 맞춤형 금융비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핀다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핀다는 국내 금융소비자들에게 금리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 혜택을 극대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제공하며, 국내 금융시장 혁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